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8, 2021 Q3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 사업자,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퇴직연금 시장 (2021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5.4%, 4.6%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DB 자산의 감소 및 IRP 자산의 급격한 증가(2020년 12월 13.6% → 2021년 6월 15.8%)에 따라 DB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60%를 최초로 밑돌았음.
- 2020년 12월 대비 DB 자산은 21,428억원 감소하였으며(원리금보장형 -21,002억원, 원리금비보장형 -426억원), 특히 원리금보장형 자산은 모든 업권에서 감소하였음.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78.9%, 21.1%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업권에서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2020년 12월 17.4% → 2021년 6월 21.1%).
- 은행이 전체 DC자산의 약 2/3 정도를 운용하나, 은행의 자산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증권 자산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원리금비보장형 비중은 증권업에서 가장 높으며(55.0%), 생명보험(18.1%), 은행(13.0%) 순으로 나타남.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총 합	비중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144,848	53,257	27,720	225,825	86.7%
원리금비보장형	6,940	14,285	13,315	34,540	13.3%
총 합	151,788	67,542	41,034	260,364	100%
비중	58.3%	25.9%	15.8%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60,223	2,842	63,065	41.5%
증권	30,452	2,865	33,317	21.9%
생명보험	43,556	1,227	44,783	29.5%
화재보험	10,617	6	10,623	7.0%
총 합	144,848	6,940	151,788	100%
비중	95.4%	4.6%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38,471	5,743	44,214	65.5%
증권	5,456	6,677	12,133	18.0%
생명보험	7,794	1,722	9,516	14.1%
화재보험	1,536	143	1,679	2.5%
총 합	53,257	14,285	67,542	100%
비중	78.9%	21.1%	100%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1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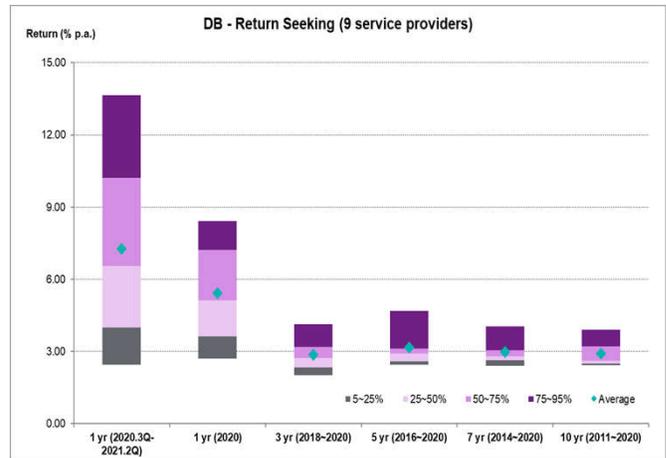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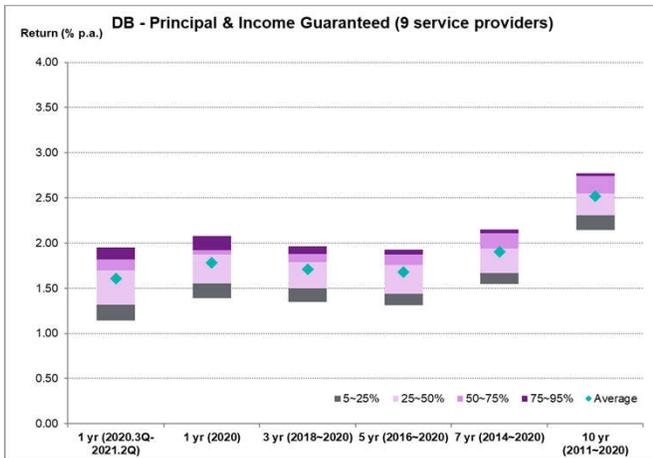
- 최근 제공 이율 하락으로 9개 사업자 평균 1년 수익률이 2020년 12월 대비 하락하였음(2020년 12월 1.78% → 2021년 6월 1.61%).
- 단기 예금 판매가 많은 은행 대비 보험 및 증권업 사업자가 50~60bp 높은 수익률을 보임.
- 9개 사업자의 원리금보장 자산은 2020년 12월 대비 6,820억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2,409억원), 교보생명(-2,190억원), 미래에셋증권(-1,617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0년 하반기 시장 상승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8개 사업자 모두 2020년 12월 대비 1년 수익률이 상승하였음. 특히, 교보생명(15.2%), 삼성생명(11.4%), IBK기업은행(10.2%)은 두자리수 수익률을 기록함.
- 보험업 사업자의 장/단기 수익률이 타 업권 사업자 대비 높은 편이며, 삼성생명은 최근 1년(2021년 6월 말 기준)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보임.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3Q-' '21.2Q)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1년 ('20.3Q-' '21.2Q)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신한은행	10,705	1.3	1.6	1.4	1.4	1.6	2.3	926	4.6	4.2	3.0	3.0	2.6	2.5
하나은행	9,232	1.3	1.5	1.5	1.4	1.7	2.3	427	3.8	3.0	2.3	2.4	2.4	2.5
IBK기업은행	8,865	1.0	1.3	1.3	1.3	1.5	2.1	238	10.2	6.5	2.7	2.6	2.7	2.6
현대차증권	12,248	1.9	2.1	2.0	1.9	2.1	2.8	397	6.6	5.1	1.9	2.9	3.1	3.2
미래에셋증권	5,096	1.7	1.9	1.9	1.9	2.1	2.8	832	4.0	3.6	2.2	2.5	2.4	2.4
한국투자증권	3,987	1.7	1.9	1.9	1.9	2.1	2.7	598	8.2	7.2	3.6	3.1	2.8	3.7
삼성생명	27,287	1.8	1.9	1.8	1.8	1.9	2.4	440	11.4	7.6	4.5	5.3	4.6	4.0
교보생명	4,965	1.7	1.8	1.7	1.7	1.9	2.6	477	15.2	9.0	3.2	3.7	3.2	2.6
미래에셋생명	3,555	2.0	2.1	2.0	2.0	2.2	2.7	283	1.6	2.5	2.5	2.9	3.1	2.7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1년 6월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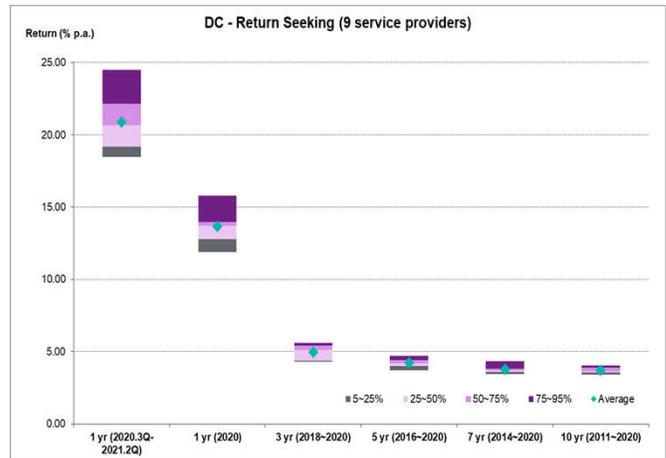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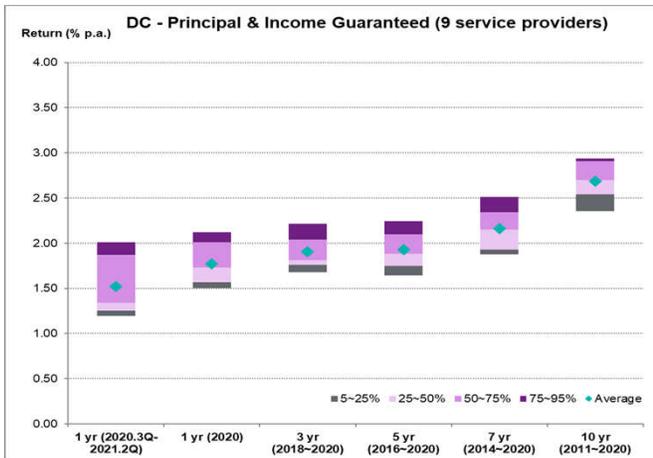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1년 수익률이 2020년 12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제공 이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2018~2019년을 제외하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뚜렷한 하락세 보임.
- 자사 원리금보장형 보험 판매가 가능한 보험업 사업자의 장/단기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타 업권 대비 높음. 은행/저축은행 예금의 제공 이율 하락이 지속되며 은행, 증권 사업자의 보험업 대비 수익률 열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강한 유동성 랠리에 힘입어 9개 사업자 평균 1년 수익률이 2020년 12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며(2020년 12월 13.66% → 2021년 6월 20.89%), 사업자별 상승폭은 4.2~10.3%p에 이룸.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투자 비중이 2020년 12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증권업 상위 3개 사업자는 원리금비보장형 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함.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2020년 12월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8,198억원)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Figure 02.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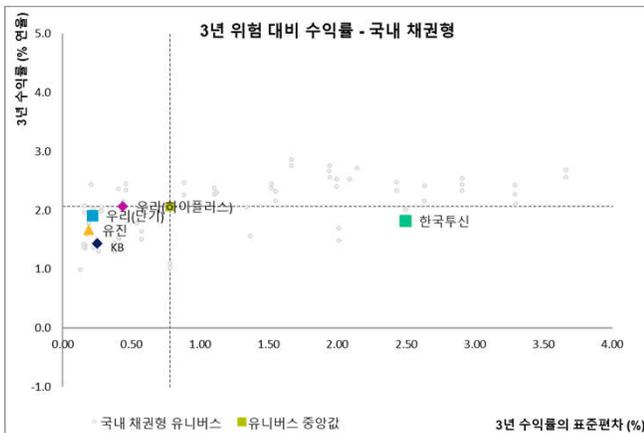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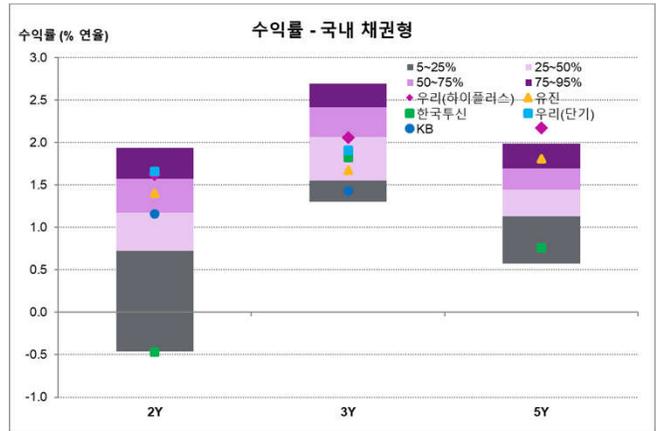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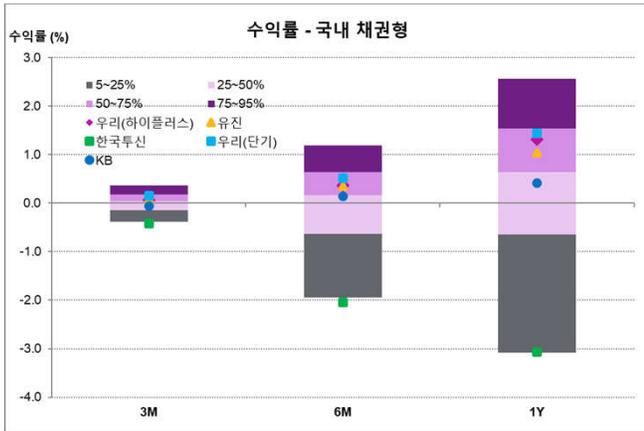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3Q- ‘21.2Q)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1년 (‘20.3Q- ‘21.2Q)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KB국민은행	7,821	1.3	1.6	1.7	1.7	1.9	2.5	1,492	19.2	11.4	4.3	3.7	3.6	3.6
신한은행	7,135	1.3	1.7	1.8	1.8	2.0	2.6	1,604	19.0	12.8	5.2	4.4	3.8	3.6
IBK기업은행	7,790	1.3	1.6	1.7	1.6	1.9	2.5	562	20.7	16.1	5.1	4.4	3.8	3.4
미래에셋증권	1,991	1.2	1.5	1.8	1.9	2.2	2.7	3,319	19.4	13.4	5.5	4.7	4.2	3.6
한국투자증권	873	1.6	1.8	2.0	2.1	2.4	2.9	947	22.2	13.7	4.4	3.7	3.4	3.8
삼성증권	762	1.2	1.5	1.8	1.9	1.8	2.3	1,044	21.2	12.6	4.3	4.0	3.6	3.4
삼성생명	3,998	1.9	2.1	2.1	2.1	2.3	2.8	724	22.7	13.7	4.7	4.1	3.7	3.9
교보생명	1,789	1.9	2.0	2.0	2.1	2.3	2.9	552	25.7	15.4	5.4	4.2	3.7	4.1
미래에셋생명	733	2.1	2.2	2.3	2.3	2.6	2.9	307	18.2	14.0	5.7	4.7	4.4	3.9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형 (2021년 6월말 기준)

Figure 04.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64	0.36	1.19	2.57	1.93	2.69	1.99
상위 25%	22	0.17	0.64	1.54	1.57	2.41	1.70
중앙값	4	0.04	0.17	0.64	1.17	2.07	1.44
하위 25%	0.4	-0.15	-0.64	-0.65	0.72	1.55	1.13
하위 5%	0.0	-0.38	-1.95	-3.08	-0.46	1.30	0.57
총 데이터의 수 (개)	183	179	170	149	102	75	35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자산탁 1(채권)ClassC-P	421	0.07	0.37	1.32	1.62	2.06	2.17
유진첨피언단기채증권투자자산탁(채권) ClassC-P2	254	0.08	0.35	1.04	1.40	1.67	1.81
한국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 1(국공채)(C)	212	-0.42	-2.05	-3.07	-0.47	1.82	0.76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자산탁(채권)ClassC-P	143	0.15	0.52	1.44	1.66	1.91	-
KB스타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산탁(채권)C-퇴직연금 클래스	134	-0.06	0.14	0.42	1.16	1.43	-



퇴직연금 펀드 분석 자료는, 한국펀드평가에서 제공하는 국내 채권형, 채권혼합형(채권 비중 60% 이상) 및 주식형 펀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펀드 유형

- 2021년 상반기에는 환매와 소규모 펀드 병합으로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펀드 수가 183개로 감소함.
- 2021년 상반기는 1년 이상 구간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2020년 하반기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다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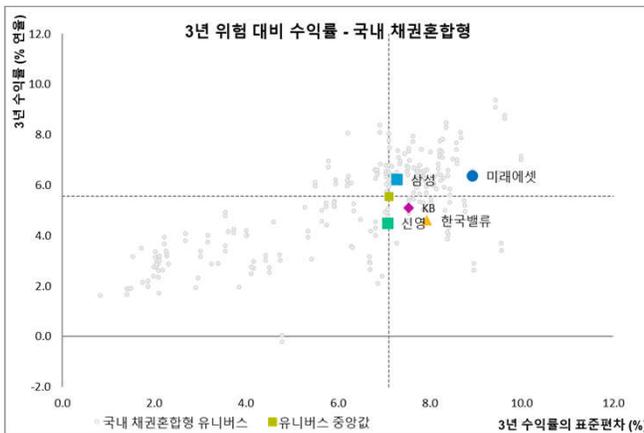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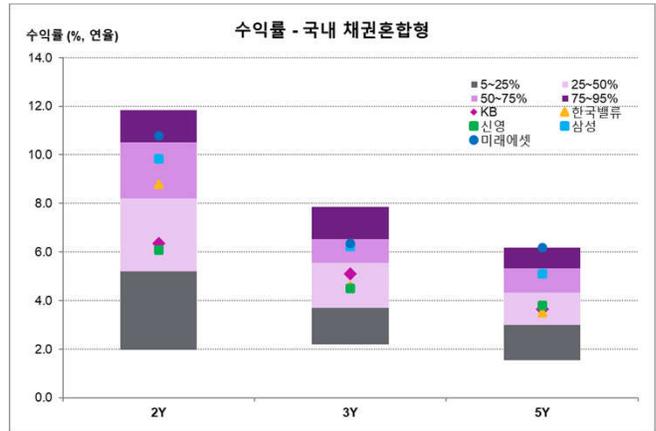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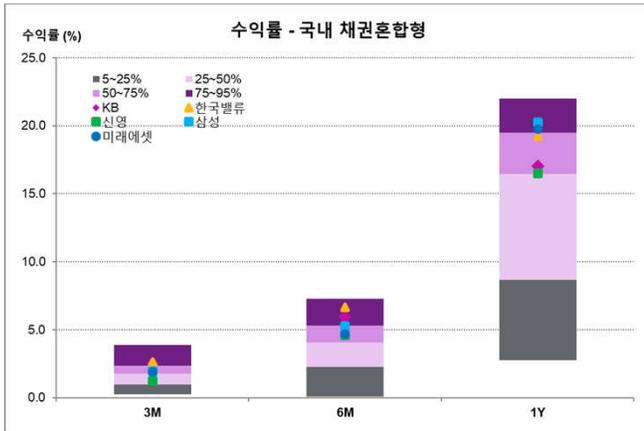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2020년 말 5위였던 NH-Amundi 2년 만기매칭형 펀드가 순위밖으로 밀려나고, 우리단기채권형 펀드가 4위로 신규 진입함.
- 시장금리 상승으로 상위 5개 펀드 중 3개가 단기채권 펀드로 이루어 짐.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혼합형 (2021년 6월말 기준)

Figure 05.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55	3.89	7.29	22.00	11.85	7.85	6.18
상위 25%	10	2.37	5.30	19.47	10.51	6.54	5.32
중앙값	3	1.76	4.07	16.44	8.21	5.56	4.33
하위 25%	0.8	0.99	2.29	8.68	5.20	3.69	3.00
하위 5%	0.0	0.26	0.09	2.76	1.97	2.19	1.55
총 데이터의 수(개)	354	340	331	308	286	254	148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자산탁(채권혼합)C	1,141	2.52	5.93	17.05	6.36	5.10	3.65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498	2.62	6.64	19.22	8.79	4.61	3.51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자산탁(채권혼합)C형	469	1.22	4.60	16.47	6.08	4.50	3.81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280	1.95	5.28	20.27	9.84	6.22	5.09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자산탁 1(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	192	1.92	4.66	19.77	10.80	6.36	6.18



펀드 유형

- 2021년 상반기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채권의 성과가 다소 저조한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꾸준한 상승으로 대부분의 채권혼합형 펀드들도 한자리수의 수익률 (중앙값 기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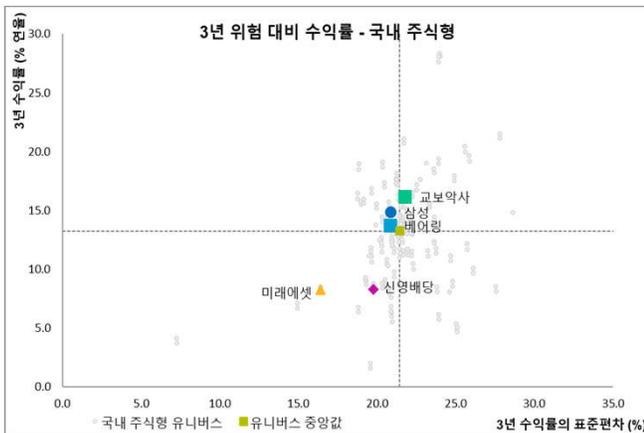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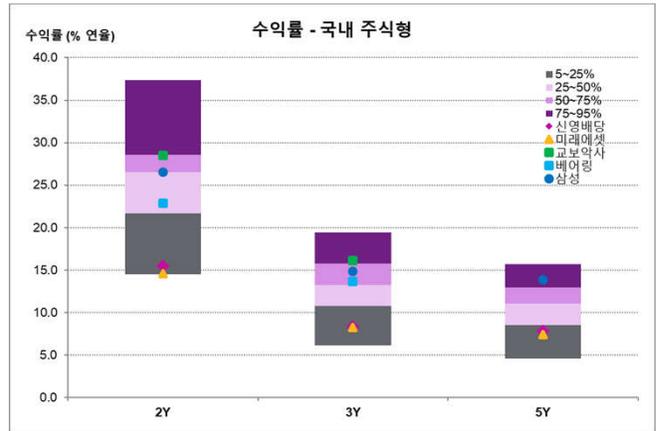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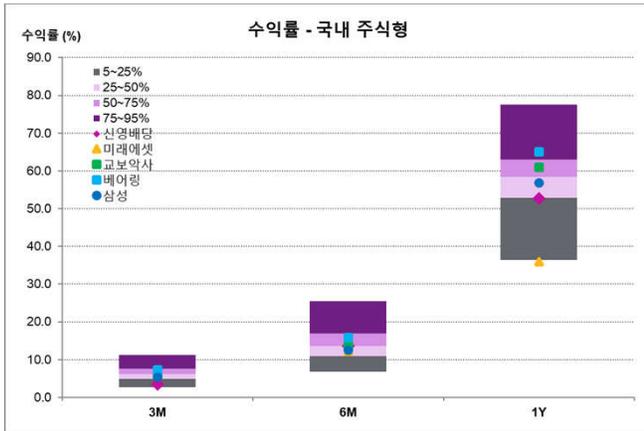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와 순위는 2020년 말 대비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됨.
- 운용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 모두 2021년 상반기에는 유형 평균 중앙값을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하였고, 이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소형 펀드들에 비해 리스크관리에 보다 더 집중한 결과로 보임.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주식형 (2021년 6월말 기준)

Figure 06. 퇴직연금 - 국내 주식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28	11.17	25.55	77.54	37.39	19.43	15.72
상위 25%	6	7.62	16.99	63.07	28.53	15.73	12.94
중앙값	1.0	6.14	13.64	58.42	26.55	13.24	11.04
하위 25%	0.1	4.97	10.87	52.84	21.64	10.73	8.54
하위 5%	0.0	2.64	6.88	36.33	14.49	6.13	4.58
총 데이터의 수 (개)	353	346	320	266	241	218	70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C형	202	3.44	13.67	52.66	15.47	8.27	7.83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종류C	167	7.01	12.19	36.00	14.56	8.25	7.38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C-Pe	122	5.99	13.56	61.02	28.50	16.12	-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lassC-P2	106	7.32	15.78	65.07	22.87	13.64	-
삼성퇴직연금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	86	5.46	12.52	56.81	26.50	14.84	13.87



펀드 유형

- 강한 상승을 보인 2020년 하반기에 비해 다소 낮은 상승세지만 2021년 상반기는 매월 1-3%대의 상승 (KOSPI의 경우)을 바탕으로 주식형 펀드들이 (중앙값 기준) 14%대의 기간 수익률을 기록함.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는 2020년 말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인덱스 펀드인 교보약사펀드가 5위에서 3위로 큰 성장을 보임.
- 2020년 하반기 성과의 격차에 따라 미래에셋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펀드 모두 1년 수익률이 50%를 초과함.
- 3년 위험대비 수익률 기준으로는 삼성과 베어링 펀드가 유형 중앙값대비 다소 양호한 위험조정 수익률을 기록함.

2021년 5월 IFRIC Update 주요 내용

IFRIC(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는 2021년 5월 특정 확정급여제도 평가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을 발표하였음. 본 보고서를 통해 제도운영 담당자에게 연말 계리평가 관련 주요 회계감사 Issu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IFRIC 의사결정 사항 소개

- IFRIC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일부 제도에 대한 할당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benefit을 지급
 - 해당 benefit은 제도 상 정해져 있는 근속기간을 충족시켜야 제공됨
- 국내 제도 중 이번 결정에서 논의된 제도 특성과 유사한 제도들은 다음과 같음

제도명	제도 설명
임금피크특별퇴직금	임금피크 연령에 특별 퇴직할 때, 특정 연도 이상 근속한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
퇴직위로금	일정 연령 구간 퇴직 시, 특정 연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준정년퇴직금	일정 연령 구간 퇴직 시, 특정 연도 이상 근속한 경우 정년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추가 퇴직금 지급

- 이런 제도의 경우 기존에 다음과 같은 여러 할당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었으나(대부분의 경우 1)의 방식 채택하여 평가), **IFRIC는 3)의 방식을 올바른 할당 방식으로 결정하였음**

할당 방식	예시 - 55세 퇴직 시, 15년 이상 근속 한 경우 일시금 급부 지급
1) 최초 입사시점부터 55세까지 근속기간에 걸쳐 할당	전 근속기간 할당 
2) 최초 입사시점부터 제도 상 정해져있는 근속기간 충족될 때까지 할당	입사시점부터 15년 동안 할당 
3) 일정 연령 이전 제도 상 정해져있는 근속기간동안 할당	40세~55세 15년 동안 할당 

관련 회계감사 Issue

- 올해 연말 평가 시 다음과 같은 부분 감사인과 논의 후 결정 필요
 - 할당 방식 변경 여부: 회사 제도가 이번 결정에 해당되는 제도 유형인지, 일반퇴직금과 별도의 제도로 할당 적용할 만큼 중요한지 (K-IFRS 1019. 57)
 - 할당 방식 변경 시, 인식 방법(P&L 혹은 OCI) 도 감사인과 함께 논의 필요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Copyright © 2021 Willis Towers Watson. All rights reserved.

About Willis Towers Watson

Willis Towers Watson (NASDAQ: WLTW) is a leading global advisory, broking and solutions company that helps clients around the world turn risk into a path for growth. With roots dating to 1828, Willis Towers Watson has 40,000 employees serving more than 140 countries. We design and deliver solutions that manage risk, optimize benefits, cultivate talent, and expand the power of capital to protect and strengthen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Our unique perspective allows us to see the critical intersections between talent, assets and ideas – the dynamic formula that drives business performance. Together, we unlock potential. Learn more at willistowerswatson.com.

Contact Details

신윤현, CFA, FRM, CAIA
Head of Investments, Korea
+82.2.3430.2550
Andrew.shin@willistowerswatson.com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2.3430.2561
Chongson.an@willistowerswatson.com